



Hello, I am Sister Gertrude Foley. I always wanted to be a Sister.

“Always” means at least from the third grade, when I started to go to Mass every day. “Third grade” was 1939-40—about twenty-five years before Vatican II, to give a little perspective.

I went to a Catholic school, so I knew Sisters as my teachers. I didn’t really know about their lives in the big mansion-like houses. I went to St. Mary of the Mount on Mt. Washington, Pittsburgh, for twelve years. The Immaculate Heart of Mary Sisters (IHM) from Scranton, PA were rather stand-offish, not friendly, so I wasn’t attracted to join them, although I spent a lot of time around them at school. In fifth grade I began to take flute lessons.

Our family couldn’t afford the dollar a week for lessons, so Sister Genoveva assigned about five of us to “charges” in the music room, and so we worked off the cost of our lessons. I was also in the orchestra. So many hours were spent with our IHM teachers.

The good news about the Sisters of Charity came without looking for it from many stories by the people who knew them. One that really impressed me was from three youngsters in our school whose mother had died during childbirth at Roselia Maternity Hospital. One of our native born German Sisters, Sister Margretta, was an aide at Roselia. The family told me that every week after the mother’s death, Sister Margretta called to see how they were doing. Then there was a girl, a high school classmate, who spent eight years at St. Anselm’s Grade School and had every Sister of Charity she ever met on a pedestal.

I entered in 1950 with 28 women, and we came to be known as the “Holy Year” group. I came to our community with four years of Latin which Mother Claudia in 1954 immediately employed in an assignment to take charge of the Latin program at St. Luke’s. I had always connected “being a Sister” and teaching, so I was quite happy. In my second year in high school teaching, Sister Cecilia discovered that I was a musician and should therefore also be a high school music teacher.



Eventually, I earned a master’s in Latin from Duquesne University, after which I never taught Latin again. A few years later, Mother Victoria sent me to Fordham University for a doctorate in theology. I majored in historical theology, completed all requirements for the Ph.D. but transferred to a doctorate of ministry program. I was attracted to the doctorate of ministry emphasis on pastoral theology. My doctorate in ministry degree is from Aquinas Institute then in Dubuque, Iowa, but now in St. Louis, Missouri. I served one year as head of the Religious Studies Department at Seton Hill University.

I was elected as assistant general superior, the second term for each of two general superiors—Mother Richard Ann Watson and Sister Baptista Madden. I then spent 10 years in Arizona where I had returned after the election of Sister Mary Ann Winters as general superior. The General Chapter had finally

accepted a proposal to establish a Region in Arizona. We built on previously established committees which we called “CFD,” Community Formation and Development. The Sisters elected me the first Regional Superior in the United States. (There was already a Region in Korea.) I served for nine years. I was then elected General Superior for two terms.

I believe that effective leadership is a form of teaching, not control. It is a palette of talents and builds on and with the talents of others. So, in addition to still being a Sister of Charity, I’m still a learner and a teacher.





안녕하세요, 거트루드 폴리Gertrude Foley 수녀입니다.

저는 항상 수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적어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미사 참례를 했으니깐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는 1939년에서 1940년이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25년 전이었지요.

저는 가톨릭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수녀님들을 선생님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큰 저택 같은 집에 사는 수녀님들의 삶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어요. 12년 동안 피츠버그의 마운트 워싱턴Mt. Washington 산에 있는 세인트 메리 오브 더 마운트St. Mary of the Mount(산 위의 성모 마리아) 학교에 다녔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톤Scranton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성심 수녀회The Immaculate Heart of Mary Sisters 수녀님들은 다정하기보다는 차가우셨어요. 그래서인지 학교에서 오랫동안 수녀님들과 가까이 지냈지만 그 수녀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니다. 5학년 때는 플루트 레슨을 받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은 일주일 레슨비 1달러를 낼 형편도 안되었습니다. 제노베바Genoveva 수녀님은 다섯 명에게 음악실 '담당'을 맡겼고 우리는 레슨비 대신 음악실 책임을 맡아 일했습니다. 학교 오케스트라에도 참여했고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우리 학교 선생님인 성모성심 수녀님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사랑의 씨튼 수녀회에 대해서는 일부러 알아보려 하지 않아도 사랑의 수녀님들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아주 감동적이었던 이야기는 우리 학교에 다니는 세 학생들에게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이들의 어머니는 로셀리아 산부인과 병원Roselia Maternity Hospital에서 아기를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로셀리아 병원의 간호조무사인 마그릿타Margretta 수녀님이 그 아이들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매주 전화를 해서 그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폈다고 했습니다. 마그릿타 수녀님은 사랑의 씨튼 수녀회의 독일 출신 수녀님들 중의 한 분이었습니다. 또,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이었던 한 친구는 성 안셀름St. Anselm 학교를 8년 동안 다녔는데 그때까지 자기가 만났던 사랑의 씨튼 수녀님들을 정말 존경했습니다.

저는 1950년에 28명의 동기들과 함께 입회했습니다. 교회에서 성년(Holy Year)으로 선포한 해였기 때문에 우리 그룹을 "성년" 그룹이라고 했지요. 마더 클라우디아Mother Claudia는 제가 4년 동안 라틴어를 배우고 입회했다는 것을 알고 1954년에 저를 성 루카St. Luke 학교로 파견을 보내 라틴어 프로그램을 맡겼습니다. 저에게는 "수도자가 되는 것"과 가르치는 일이 항상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교 파견이 무척 행복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가르친 지 2년째 되는 해에 세실리아Cecilia 수녀님은 제가 음악을 한다는 것을 아셨지요. 그래서 고등학교 음악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듀케인 대학교Duquesne University에서 라틴어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시 라틴어를 가르치지지는 않았습니니다. 몇 년 후에 마더 빅토리아Mother Victoria는 저를 포덤 대학교Fordham University에서 신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도록 파견했습니다. 역사 신학을 전공하고 박사 학위 과정을 모두 마쳤지만 다시 사목학 박사 과정으로 바꿨습니다. 사목신학을 중심으로 한 사목학 박사 학위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당시에 아이오와주 두부크Dubuque에 있던 아퀴나스 인스티튜트Aquinas Institute에서 사목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아퀴나스 인스티튜트는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St. Louis에 있습니다. 그리고 씨튼힐 대학교 종교학과 학과장으로 1년간 일했습니다.

또한, 부총장으로 선출되어 마더 리처드 앤 왓슨Richard Ann Watson 과 뱀티스타 매든Baptista Madden 두 총장 수녀님의 두 번째 임기에 함께 일했습니다. 메리 앤 윈터스Mary Ann Winters 수녀님이 총장으로 선출된 후에는 그전에 살았던 애리조나로 돌아가 10년을 지냈습니다. 마침내 전체총회에서 애리조나에 지부를 설립한다는 제안이 통과되었고, 이전에 설립한 "수도회 양성과 개발CFD, Community Formation and Development" 위원회들을 발전시켰습니다. 수녀님들은 저를 미국 내 첫 지부의 지부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때 한국에는 이미 지부가 있었습니다). 지부장으로서 9년 동안 봉사하고 난 후에는 총장으로 선출되어 두 번의 임기를 지냈습니다.



저는 효과적인 리더십은 지배가 아닌 지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은 다양한 선물을 모아 놓은 팔레트이며, 다른 이들의 다양한 선물 위에 그 선물들로 만들어집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전히 사랑의 수녀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며, 여전히 배우는 사람이고 지도하는 교사이기도 합니다.